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3-2

(공개)

#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

2023. 10. 16.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I.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 .....	1
II. 그간의 대응 경과 .....	2
III. 국내 산업계 영향 .....	3
IV. 향후 대응방안 .....	4

## I .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현황

- ◇ '23.10.1일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가 발효됨에 따라 '23.10월~'25.12월 보고의무 이행, '26.1월부터 본격시행 예정

### □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'23.10월부터 CBAM 시행

- (내용) 철강 등 대상품목\*을 EU로 수출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

\* 철강, 알루미늄, 비료, 시멘트, 수소, 전력 등 총 6개 품목

- (목적) EU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, 역내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'탄소누출' 방지 목적

- (경과) CBAM 초안 공개('21.7) ⇨ CBAM 최종법안 발효('23.5) ⇨ 전환기간 보고의무 관련 이행법('23.9) ⇨ '23.10월 전환기간

\* 전환기간('23.10~'25.12): 보고의무 → 본격시행('26.1~): 보고의무+인증서 구매의무

- EU는 '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·위임법(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)을 추가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정

#### < 위임법·이행법 주요내용 및 발표 일정(잠정) >

발표시기	위임법	이행법
'24.3분기	검증자 인정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	신고자 승인, CBAM 등록소, 검증기관 인정, 검증
'25.2분기	-	지리적 범위, CBAM 신고, 배출량 산정방법론, 간접배출량, 기지불 탄소가격, 인증서 가격, 세관정보, EU ETS 무상할당 연계
필요시	면제국 현행화, 우회방지, 전력 관련 규정	-

- (EU측 준비현황) 집행위, 회원국, 민간(수입업자) 모두 아직까지 이행 준비중으로 전환기간 초기 시행착오 발생 가능(EU무역관)

- 정부 일부 회원국(7개국)은 최근까지 CBAM 담당 기관 미지정, 민간 수입업체는 관련 정보 미흡 등 보고의무 관련 불확실성 우려

## II. 그간의 대응 경과

### 1] [대외협상] CBAM 법안에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한 정부간 협의 지속

- 주요 입법단계마다 **정부의견서 제출 및 고위급 아웃리치**
  - 이에 우리 입장도 일부 반영되었으며, EU측은 향후 이행법 제정 시에도 우리측과 협의한다는 입장 표명

### 2] [국내대응] 범부처 CBAM 대응 TF 등 민관합동 대응체계 마련

- (대응TF) 산업부·국조실 등 **범부처 EU CBAM 대응TF**를 구성\*, 운영\*\*하여 부처별 대응현황 점검·조율, 업계 지원전략 마련
  - \* 산업부, 환경부, 국조실(탄녹위), 기재부, 중기부, 외교부
  - \*\* '23.2월 출범회의(대응 점검 등), '23.7월 제2차 회의(이행법 관련 정부 입장 마련)
- (민관합동대응) **산업계, 연구기관, 지원기관**과 대응방안 마련\*
  - \* 탄소통상 자문단(7회 개최), CBAM 철강협의체(26회 개최), 배출량산정협의체('23.2~8) 등

### 3] [업계지원] 배출량 보고역량 및 저탄소 생산기술 확보 지원

- 기업설명회·세미나 수시 개최 등 **CBAM 이행 관련정보 지속 제공**
  - CBAM 이행 지침서\* 작성·배포('23.9, 관계부처 합동), CBAM 헬프데스크\*\* 운영('23.10~)을 통한 배출량 산정·보고 지원
    - \* CBAM 이행 방법, 대상 품목, 내재배출량 산정방법, 既지불 탄소가격 산정 예시 등
    - \*\*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콜센터, 온라인상담), 한국환경공단(전화 상담, 방문 컨설팅 등)
- 철강\* 등 우리 산업계의 **저탄소 생산역량 개발 지원**
  - \*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철강부문 총사업비 2,097억원('23~'30년) 中 수소환원제철 기초기술개발에 269억원 지원('23~'25년)

### Ⅲ. 국내 산업계 영향

#### ① (영향업종) 철강 등 對EU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직·간접 영향

- (대상기업 현황) 국내의 철강·알루미늄 등 생산·수출\*업체는 140여개로 파악(22년 수출통계 기준, 생기연 자체 추정)

\* 對EU수출('22) : 철강(44.6억불), 알루미늄(5.4억불), 비료(540만불), 시멘트(1만불), 수소/전력(0)

- (영향업종) 철강산업은 對EU 수출비중('22년 11.7%) 높고,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가격 상승 가능
  - 알루미늄의 경우, 잉곳(괴)\*을 전량 수입하여 국내 가공하므로 영향 제한적이나, 잉곳 수출기업의 배출량정보 확보는 필요

\* 알루미늄의 소재로, 생산과정에서 알루미늄 내재 탄소배출량의 95% 발생

#### ② (대응현황) 철강 대기업 중심으로 배출량 보고역량을 일부 확보

- 국내 철강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(K-ETS) 대응경험 유무 및 상·하공정 생산단계 기업별로 배출량 보고역량 차이
  - (상공정) 일관제철업체(포스코·현대제철 등) 등 상공정 업체는 CBAM 초기부터 적극 대응, 배출량 보고역량도 상당 확보
  - (하공정) 반제품(슬라브·빌렛 등) 가공하는 하공정 업체는 K-ETS 경험 부족, 반제품의 배출량 정보 부족 등 대응역량도 미흡한 편
- 특히, K-ETS 대응경험이 없거나 CBAM 관련 내용 숙지가 낮은 중소·중견기업 등은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

## IV. 향후 대응방안

- ◇ '26년 본격시행에 대비하여, **對EU 협상 강화**와 함께 해당 수출 품목 저탄소 전환(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), **중소·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**

### ① 유사입장국 공조 등을 통한 **對EU 협의 지속**

- **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 EU와 협의 지속**, 우리 입장 반영 추진
  - EU집행위 조세총국장 방한('23.11) 등 계기 고위급 아웃리치, 한-EU 공동 인포세션을 통한 우리 업계의견 직접 전달 추진
  - 한-EU FTA 무역위('23.10), 그린파트너십 등 양자채널도 적극 활용
  - **유사 입장국과 공조하여** 공동 아웃리치·의견서 관련 입장 조율
- 본격시행 대비 **인증서 비용 및 검증부담 완화** 추진
  - (탄소가격 감면) 국내 既지불 탄소비용의 최대한 인정 추진
  - (검증부담 완화) EU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(수출기업 연 1회 제출 필요)도 인정 추진

### ② **중소·중견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**

- (정보제공) CBAM 이행 지침서, 업종별 해설서, 상담 Q&A, 실제 보고사례집 마련(~'23.12) 등 **우리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**
- (교육·컨설팅) CBAM 헬프데스크 운영, 부처 합동 설명회 등 **CBAM 대상기업 실무자 교육 강화**
  - \* 배출량 산정 헬프데스크, 품목별 배출량 산정방법 교육·컨설팅 등
- (보고·검증) **MRV 컨설팅 비용 지원**, 실무자 교육을 통한 **중소기업용 간이 MRV\* 시스템 활용 확대**
  - \* 에너지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으로, 연내 60여개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추진
  - **배출량 검증비용 등 본격시행 시 예상되는 추가 부담을 경감** 하기 위한 **각종 지원 사업\*** 지속
    - \* 수출바우처,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, EU-ETS 인정기관 검증 지원('24안 24억원) 등

### ③ 저탄소 전환 및 탄소저감 기술개발 가속화

- (저탄소 전환)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하여 저탄소 기술개발·설비교체('24안 1,277억원) 등 재정지원 확대, 우수기업 인센티브 마련
- (저탄소 R&D)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경쟁력 강화
  - 단기 현재 설비에 적용가능한 탄소감축기술\* 개발, <sup>중장기</sup> 수소환원 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
  - \* 무탄소 연원료 사용 하이브리드 제선기술, 전기로 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순환기술 등
  - 또한,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 공통 적용 탄소중립 모델 발굴 등 탄소저감을 위한 공동 R&D 추진

### ④ 제품 탄소배출량 관련 기초 인프라 확충

- (국제상호인정) 국내 공인기관의 배출량 검증결과가 국제 통용되도록 국제인정기구포럼(IAF) 국제상호인정협정(MLA) 가입 지속 추진
  - \* 국립환경과학원('22.1), 국가기술표준원('23.9 가입 신청)
  - \*\* 국제인정기구포럼과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인정 분야 확대 등('24안 645백만원)
- (국제표준)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국제표준 개발\* 지속 추진
  - \* 제품 탄소배출량(ISO 14067) 산정을 위한 제품별 국제표준은 철강건설 등 8개 수준
  - \*\* 최근 KS 2종 개발완료, 6종 개발 추진중 / 국제표준 24종 개발 추진중
- (LCI\* DB)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 확대
  - \* Life Cycle Inventory : 원·부자재(철광석, 유연탄) 등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 정보

### ⑤ 탄소감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및 금융 활용 확대

- (배출권거래제) 기업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할당방식 개선, 국내지불 탄소가격 감면을 고려한 배출권시장 개선 추진
  - \*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'23.下~) 등을 거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(~'24)
- (금융지원) 넷제로 유망기업에 배출량 저감시설·운전자금 융자, 연료전환·공정개선 등 배출량 감축기업 보증 지원 추진